

濟州島 土器에 대한 一考察

李 淸 圭*

目	次
1. 머리말	3. 종합고찰
2. 각 시기별 토기내용	4. 맺음말

1. 머 리 말

濟州島 출토 先史 및 古代 토기에 대한 論考는 지금까지 후기무문토기를 중심으로 형식분류를 시도한 李白圭의 “濟州島 無文土器에 대한 一考察”¹⁾의 1편 분으로 최근까지 고고학적 조사연구가 미진한 제주도에 있어서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1984년 이후 濟州大學校博物館의 수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와 地表調査를 통해 이 지방의 선사 및 고대토기 자료는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量的으로 늘어났다.²⁾

* 濟州大學校 史學科 助敎授

1) 李白圭: “濟州島 無文土器에 대한 一考察: 濟州島의 考古學的 調查研究(1)”, 《考古學》 제5·6합집, 1979, pp. 141~162.

2) 지금까지 제주도에서의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의 성과를 종합, 정리한 보고서가 최근에 출간되었다

李淸圭: 《濟州島 遺跡: 先史遺跡地表調査報告》, 濟州大博物館 遺跡調査報告 제2집, 1986.

한편 지금까지 우리나라 토기형식 분류에 대한 논의는 어느 일정한 시기에 국한해서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지역적 한계 내지 문화권이 뚜렷하기 때문에, 단일지역문화에 대한 通時的 연구라는 측면에서 여러 시기에 걸친 종합적인 논의도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에서 이 글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다루고자 하는 토기의 시기적 上限은 신석기시대 후기이고 下限은 삼국시대말 혹은 통일신라초가 된다. 상한연대에 해당하는 유물은 北濟州郡 朝天邑 北村里 rock-shelter 유적에서 확인되고, 하한연대의 유물은 北濟州郡 涯月邑 郭支里 貝塚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이 글의 일차 목적이 제주도 선사 및 고대 토기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으므로, 각 시기에 대표적인 형식의 토기만을 분류, 선정하여 다룰 것이고 출토량이 극히 적거나 예외적인 토기는 각 시기별로 별도로 길게 다룰 금후의 다른 논고에 미룬다.

철기시대 이후의 고대 토기에 있어서, 제주도에는 무문토기 전통을 이어 받은 산화염 燒成의 赤褐色 민무늬토기가 계속 대량 제작된다. 물론 金海式土器(硬質 혹은 瓦質 전부를 포함)나 古墳期 三國의 陶質土器도 만들어지나, 양적으로 앞서의 토기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후자의 김해식 및 도질 토기에 대해서는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며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시기를 구분하는 데에 있어, 金元龍의 (1) 신석기시대(B.C. 1000이전), (2) 청동기시대(B.C. 1000~300), (3) 초기철기시대 혹은 原三國時代(A.D. 0~300), (4) 삼국시대(A.D. 300~600)의 분류원칙을 따를 것이나, 아직 나름대로의 절대연대 자료를 얻지 못하고 같은 형식의 토기라 할지라도 남한지방과의 시간적 격차를 고려하여 여기서는 편의상 I期·II期·III期·IV期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3)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86.

2. 각 시기별 토기내용

1) I 期

(1) I 式(點列文 土器)

살짝 밖으로 벌어진 直立의 口緣部에 2-4열의 점렬무늬가 누르기 수법으로 施文된 것으로 北村里⁴⁾ 및 翰林邑 月令里 한들굴 rock-shelter 유적⁵⁾에서 출토되었다.

完形의 출토예가 없어 바닥형태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같은 유적에서 출토한 신석기 시대 토기 바닥편이 둥근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남한 지방과 같은 圓底 半卵形의 器形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점렬무늬는 그 모양에 따라 삼각점렬, 원형점렬 그리고 기타 점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삼각점렬무늬는 조각칼처럼 끝부분이 삼각형을 이루는 施文具를 비스듬히 눌러 만든 것으로, 이 중에는 다시 시문구를 세로로 하여 누른 것과 가로로 하여 누른 것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림1)

그리고 삼각무늬 자체가 정연하지 못하고 줄도 들쭉날쭉한 것도 있다(그림2).

원형점렬무늬는 둥근 막대모양의 시문구를 수직으로 눌러 시문한 것이 기본이나, 이를 비스듬히 눌러 무늬자체가 타원형으로 변형된 예도 있다(그림3).

이 밖에 눌러 찍힌 무늬모양이 일정하지 않거나, 살짝 훑듯이 찍어낸 점렬무늬토기편도 있다.(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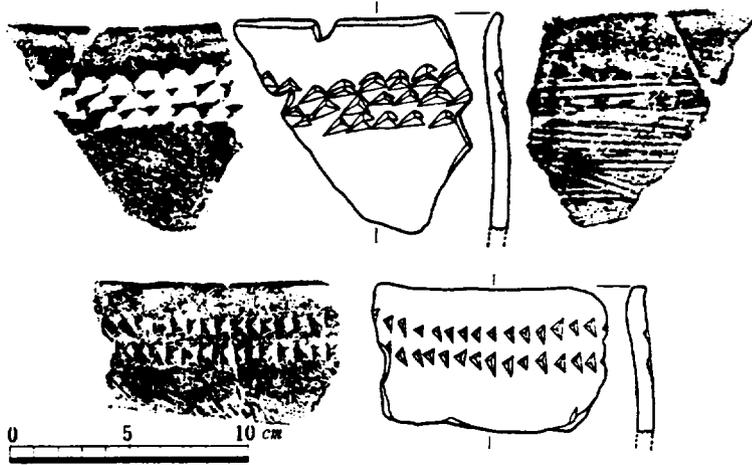
이 형식의 토기그릇 안쪽에 조개편으로 整面한 흔적으로 平行粗痕文이 보이는데, 똑같은 예가 全南 黑山島貝塚⁶⁾, 釜山 金谷洞 栗里 貝塚⁶⁾ 金海 水佳里 貝塚⁸⁾ 등의 유적에서 출토된 바가 있다.

4) 1986년 6~7월에 濟州大學校博物館에서 발굴조사하였고 報告書는 未刊이나 개략적인 내용이 硯책 2)에 실려 있다. 硯책 2) pp.1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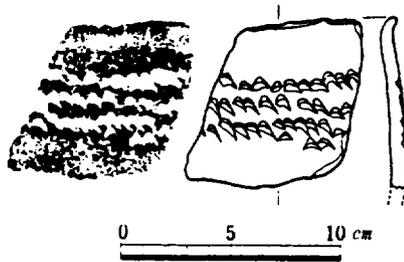
5) 1985년 지표조사에 의해 확인됨. 硯책 2) pp.28~31.

6) 金元龍·任孝宰:《南海島嶼考古學》,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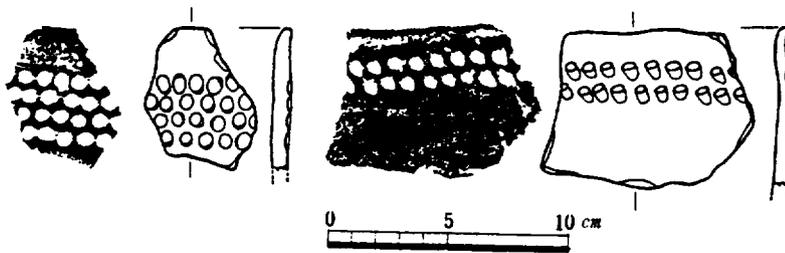
7) 金廷鶴·鄭澄元:《金谷洞栗里貝塚:岩蔭住居遺跡》, 釜山大學校博物館遺跡調查報告 제3집,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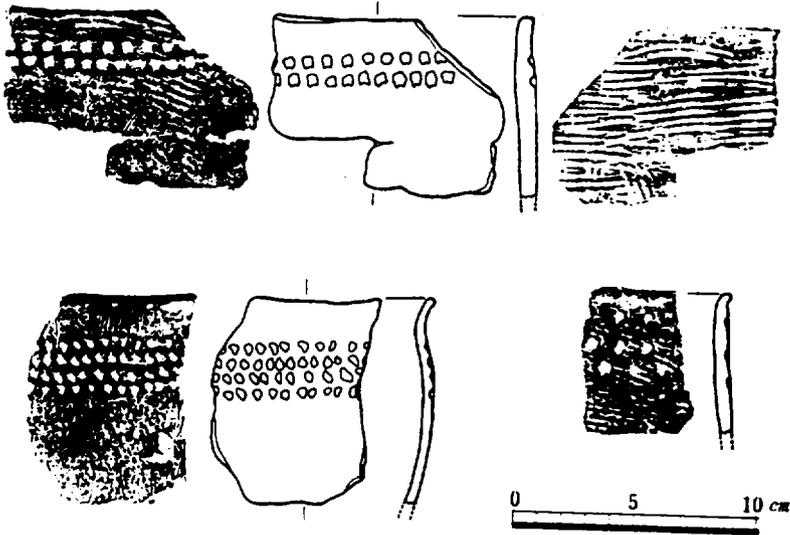
(그림1) I期 I式 삼각점렬무늬토기



(그림2) I期 I式 변형삼각점렬무늬토기



(그림3) I期 I式 원형점렬무늬토기



(그림4) I期 I式 기타점렬무늬토기

그릇 두께는 대체로 0.6~0.8cm 정도이며 흑갈색을 띤 것이 많고, 태토는 제주도 현무암의 자갈한 모래가 섞여 있는 점토성분이다.

(2) II式(二重口緣土器)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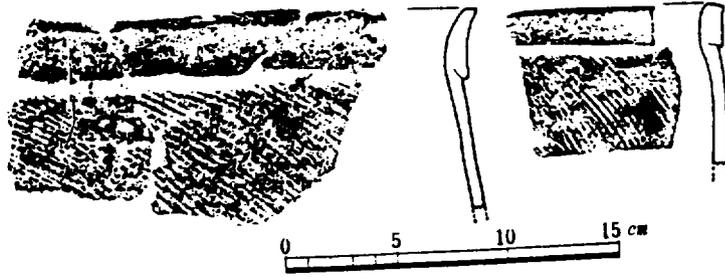
전체 器形은 전형적인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토기의 포탄형·반란형을 이루면서 구연부가 이중으로 된 겹구연의 형식으로 釜山 東三洞, 金谷洞, 岩南洞과 金海 水佳里, 凡方里 및 梁山 新岩里, 巨濟 山達島 등의 경남해안지방의 여러 유적과 전남 黑山島 유적에서 발견된 바가 있다.

제주도에서도 북촌리유적에서 여러 점 출토되었으며, 굽은 모래가 섞인 예도 있지만 대체로 고운 점토질 성분이고 그 두께는 0.6~0.8cm 정도이다.

8) 釜山大學校博物館:《金海 水佳里貝塚 I》, 釜山大學校博物館遺跡調查報告 제4집, 1981.

9) 남해안 지방의 二重口緣土器에 대한 서술은 다음의 논문을 주로 참조하였음. 鄭澄元:“南海岸地方의 櫛文土器 研究(1):釜山·慶南地方 晩期 櫛文土器의 檢討”,《釜大史學》제6집, 1982, pp.1~38.

그 중에는 그릇겉면을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의 비스듬한 방향으로 빗질
 整面한 흔적이 있는 것이 여러 점 보이는데, 이와 같은 예는 흑산도유적에도
 있다. 그릇 안쪽면에 가로평행의 粗痕무늬가 있는 것은 I 式의 點列무늬 토기
 와 같다(그림5).



(그림5) I 期 II 式 이중구연토기

이 겹구연토기에 대해서는 평남·황해도지방의 팽이형토기 영향을 받아 제
 작되었다는 설¹⁰⁾과 경남지방에서 自生했다는 설¹¹⁾ 두 가지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둥근 바닥의 포탄형 혹은 반란형 겹구연토기는 지금까지 제주도
 비롯해서 전남 및 경남의 해안지방에서 발견된 토기 형식으로, 남해 해양문화
 권의 특징적인 토기라는 사실이다.

(3) 기타

北村里 유적에서는 앞서의 I, II 式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형식의 토기 예가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이들 토기도 남해안 지방 여러 유
 적에서 같거나 비슷한 예가 출토된 바 있다.

- ① 이중구연 바로 밑에 斜格子무늬가 그어져 있는 것으로 석영·운모·

10) 註6)의 책, p. 44, 191. 그러나 단정짓지 않고 있다. 註7)의 보고서,
 pp. 5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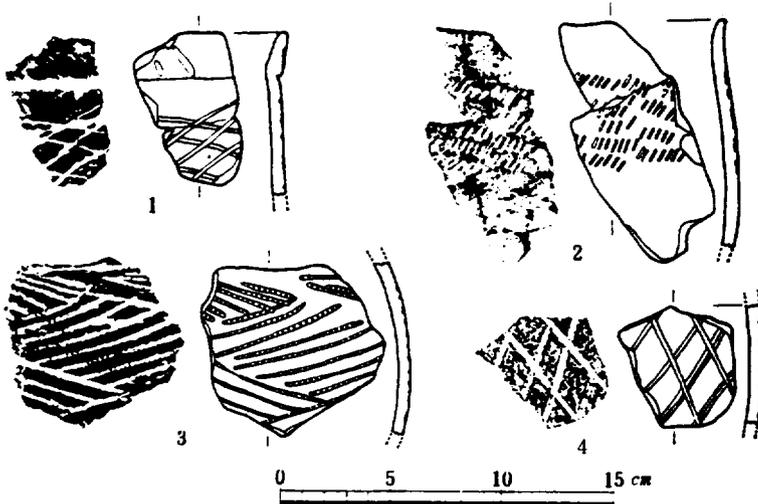
11) 註9)의 논문, p. 25. 양산 新岩里 유적의 예를 最古式으로 보고 自生說의 가
 능성을 밝혔다.
 韓永熙; “角形土器考”, 《韓國考古學報》 14·15, 1983, p. 86.

장식의 모래가 혼입된 砂質胎土 성분을 가져 일반적인 濟州島産 토기와 성분 차이가 있다(그림 6-1).

② 직립의 구연부에 短斜線무늬가 押引手法로 장식된 것으로 남한지방의 일반적인 신석기시대 토기형식이다(그림 6-2).

③ 胴體部片으로 톱니날 같은 施文具를 눌러 무늬를 만든 것으로 무늬의 전체적인 형상은 물고기뼈 무늬를 연상하게 한다. 같은 수법의 토기편은 경남 統營 上老대島 유적 上層에서 출토된 바가 있다(그림 6-3).¹²⁾

④ 동체부편으로 스킨듯이 그은 擦過狀 沈線수법의 斜格子무늬가 시문되었는데 비슷한 예가 金海水佳里 貝塚 중간층에서 출토된 바 있다(그림6-4).¹³⁾



(그림6) I期 기타형식의 토기(1)

⑤ 구연부 바로 밑으로 불규칙하게 선을 내리 그어 무늬를 만든 것으로 비슷한 무늬의 예가 김해 수가리,¹⁴⁾ 부산 금곡동 유적¹⁵⁾에서 보인다(그림 7-2).

12) 손보기: "상노대도의 선사시대 살림", 1982, p.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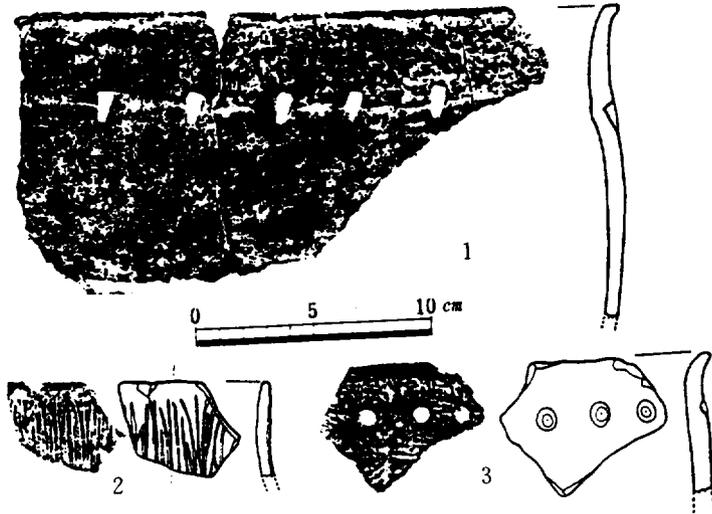
13) 註8)의 보고서, pp. 36~38.

14) 註8)의 보고서, pp. 56~68.

15) 註7)의 보고서, p. 24.

⑥ 조각도 같은 시문구로 파내듯이 무늬를 만든 일렬의 점렬무늬토기로 흑산도 유적에도 같은 예가 있다(그림 7-1).

⑦ 원형의 점렬무늬를 일렬로 장식한 구연부 토기편이 한들굴 유적에서 수습되었는데, 원형 끝의 시문구를 살짝 회전시켜 무늬를 만든 수법이 다른 지방에서는 보이지 않는 예이다(그림 7-3).



(그림7) I期 기타형식의 토기(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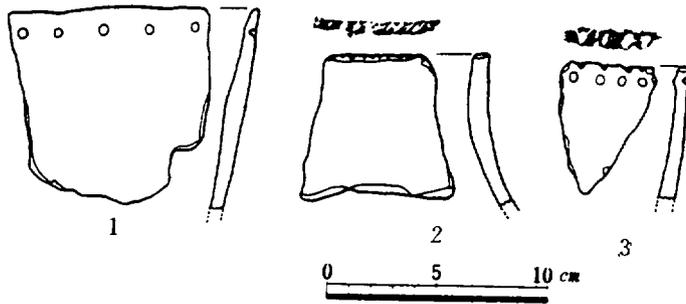
2) II期

(1) I式(공렬 및 골아가리토기)

구연부에 공렬무늬가 있거나 혹은 입술면에 톱날장식(刻目)이 가해진 골아가리 토기로 우리나라에서 함경도지방에서 처음 나타나 남한지방에 전파되었다.

지금까지 이러한 형식의 토기는 전라도지방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 밖의 경기·강원지방, 충청, 그리고 경상도지방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제주도에서는 大靜邑 上幕里 산이수동, 涯月邑 郭支里, 제주시 龍潭洞, 朝天邑 北村里 그리고 翰林邑 東明里에서 발견되었다.

이 I式 토기중에는 ① 순수공렬무늬토기(그림8-1), ② 순수 골아가리토기(口脣部刻目土器)(그림8-2), ③ 공렬무늬와 톱날장식이 함께 있는 토기 등 세 가지 형식이 있다(그림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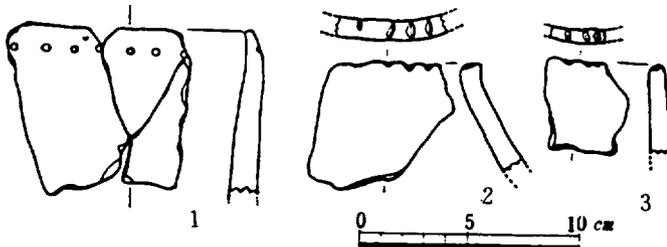


(그림8) Ⅱ期 I式 공렬 및 골아가리 토기

①의 토기는 바리모양이 대부분으로 남한지방에서는 ①~③ 형식 중 가장 많으나 제주도에서는 그 반대이고, ②의 토기는 바리모양도 있으나, 목이 달린 항아리모양의 토기 대부분이 이 형식에 속한다. ③의 토기는 남한지방에서 그리 많지 않으나 제주도에서는 가장 많으며, 그 대부분이 바리모양이나 외반구연의 항아리 토기에도 더러 그 예가 보인다.

한편 제주도 공렬토기가 남한지방의 것과 다른 특징은 대부분이 구멍을 누르는 방향이 그릇 바깥면에서 안쪽으로 향한다는 점이다. 또한 원래 공렬무늬는 반관통 형식을 취하는데 그 구멍깊이가 얕은 것이 제주도에는 많다.

같은 형식의 토기에 있어 이러한 속성 차이는 지역 및 시기적 차이를 고려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下限年代도 더욱 낮추어 보아야 할 것이다. 郭支里 貝塚, 용담동 무덤 유적, 翰林邑 東明里 출토 토기를 보면 퇴화형의 공렬 및 골아가리 토기로, 器壁의 두께, 태토 성분, 燒成度 등이 전형적인 예에서 벗어나, 다음 Ⅲ期 토기에 가깝다(그림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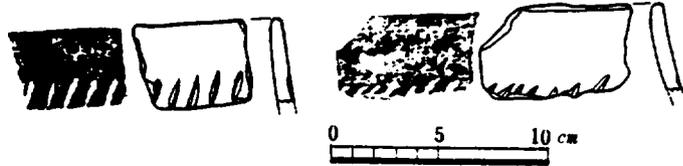
(그림9) Ⅱ期 용담동(1) 및 동명리 출토(2,3) 1식 토기

(2) II식(팽이형토기)

평남, 황해도지방에서 처음 만들어져 남한지방에 전파된 형식의 토기로 이 중구연과 구연부 하단의 短斜線장식을 대표적인 속성으로 갖고 있다.

남한지방에서 알려진 이 계통의 토기는 변형팽이형토기가 그 대부분으로 바다가 전형적인 것보다 넓어지고, 접구연의 폭도 넓어지면서 납작해진다. 아울러 단사선무늬가 연속적으로 施文되는데, 제주도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형식의 토기의 남방한계는 충청도지방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에서는 上幕里 산이수동 유적 출토 예 뿐으로(그림10) 그 숫자도 수점에 지나지 않고, 다음 III, IV식의 토기처럼 함경도 계통의 공렬토기, 골아가리 토기의 속성과 복합된 토기 형식이 많다.



(그림10) II期 II式 팽이형토기

(3) III식(孔列+二重口緣+短斜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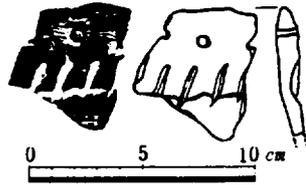
I식 토기 속성 중 공렬무늬만 있고 II식의 이중구연과 구연부 하단의 단사선 장식이 복합된 형식의 토기이다.

이와 같은 형식은 남한지방에서 경기도 麗州郡 欣岩里 5호 주거지 유적¹⁶⁾과 경북 月城郡 內南里¹⁷⁾에서 몇 점 출토되었다.

제주도에서는 上幕里 유적 출토 예 뿐으로 이중구연의 두께가 두텁고, 단사선 무늬가 정연할 뿐만 아니라, 구멍장식도 안쪽에서 누른 형식이어서 內南里 예와 비슷하다. 태토에 석영·운모·장석·모래 등이 섞여 있어 현무암 모래가 섞인 일반적인 제주도산 무문토기와 다르다(그림11).

16) 서울대박물관·고고인류학과; 《欣岩里 住居址》,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총간 제4책,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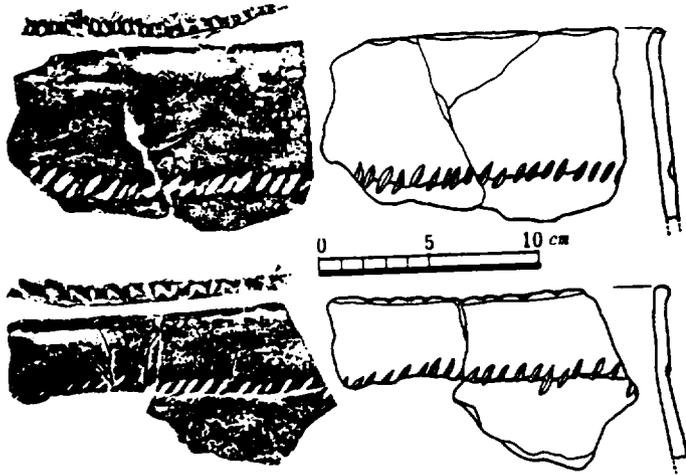
17) 金元龍; “韓國無文土器 地域分類試論”, 《考古學》 제1집, 1968, p. 28.



(그림11) II期 III式 토기(공렬+이중구연+단사선)

(4) IV式(刻目+二重口緣+短斜線)

II式的 이중구연과 단사선 장식의 팽이형토기에, 톱날장식이 가해진 골아 가리 토기로 공렬무늬는 없다. 입술면의 톱날 장식은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두 번에 걸쳐 베풀어졌기 때문에 연속적인 X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예도 있다(그림12).



(그림12) II期 IV式 토기(각목+이중구연+단사선)

이 형식의 토기는 충남 夫餘 松菊里¹⁸⁾, 충북 淸州市 內谷洞 유적¹⁹⁾에서 출토

18) 國立中央博物館:《松菊里 I》, 國立博物館 古跡調查報告 11책, 1978.

19) 車勇杰:“淸州 內谷洞遺蹟 發掘調查報告”,《中部高速道路文化遺物發掘報告書》, 1986, pp.481~564.

된 바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역시 상모리 유적에서만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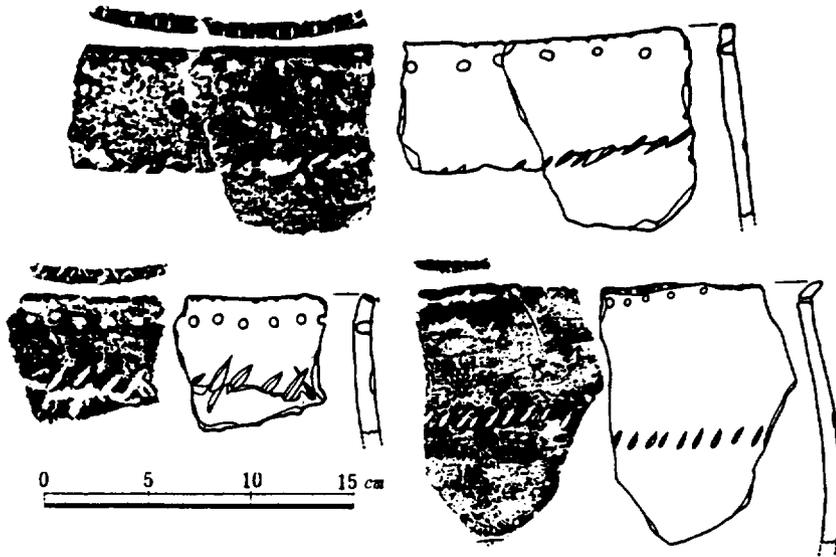
상모리 출토 토기 중 이 IV형식의 비중이 훨씬 높아져, 같은 세 속성의 복합형식 III式의 토기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5) V式(孔列+刻目+二重口緣+短斜線)

I式의 공렬 및 톱날장식(刻目)과 II式의 이중구연, 단사선장식의 네 가지 속성이 모두 베풀어진 형식으로 지금까지 남한지방에서 발견된 바가 없고 단지 제주도 상모리에서만 출토되었다.

접구연은 구연부 자체를 바깥으로 말아 붙이거나, 한겹 덧붙이는 것이 아니고, 구연부와 동체부를 따로 만들어 外上內下式으로 서로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이음새에 短斜線 장식을 가하는데,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두 번에 걸쳐 시문되어 X자선의 연속무늬를 만들어 낸 예도 많이 보인다. 역시 입술면에서도 연속 X자선의 톱날장식 예가 있다.

이 형식의 토기 대부분은 공렬장식을 바깥쪽에서 鏤었으며, 구연부 형태를 보면 직립구연의 끝이 밖으로 꺾어지는 예가 많이 나타난다(그림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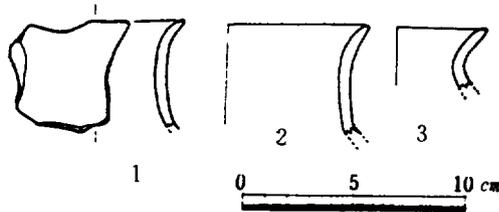


(그림13) II期 V式 토기(공렬+각목+이중구연+단사선)

(6) VI式(마연토기)

고운 점토질 태토에 얇은 두께의 그릇 겉면을 마연한 토기로 외반구연의 작은 단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릇 겉면의 색은 검정색을 띠는 경우와 적색 혹은 적갈색을 띠는 경우 두 가지가 있고, 목부분이 형성되어 長頸壺 스타일을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외반구연부가 심하게 꺾이어 동체부로 막바로 이어지는 예도 있다(그림14).



(그림14) II期 VI式 마연토기(1은 상모리, 2·3은 용담동 출토)

이와 같은 器形 및 색깔의 차이가 시기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인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나, 상모리, 광지패총 II지구 下層, 용담동 용관유적 남쪽 구역 北村里 rock-shelter 유적 上層에서 출토된 바 있다.

3) III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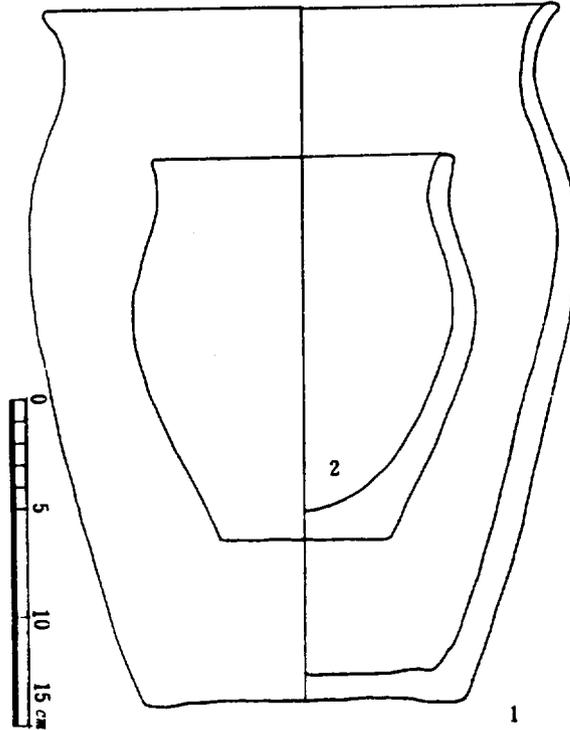
(1) I式(廣口外反口緣항아리)

구연부가 직립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밖으로 크게 벌어지고, 입지름이 바닥지름보다 훨씬 넓은 항아리 형태로서, 산화염 燒成 수법, 胎土 및 제작 방법 등에 있어 전형적인 적갈색 무문토기이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나 燒成度 혹은 硬度는 그에서 벗어나 있다. 기벽의 두께도 1.5~2cm 정도의 것이 많아 훨씬 두터워지고, 태토 보강제로 혼입된 모래알도 보다 굵은 편이다. 그리고 바닥의 바깥 언저리를 손으로 눌러 축약시키지 않고 그대로 밋밋하게 성형한 것이 또한 차이가 난다.

광지패총 II지구, 용담동 용관유적을 비롯해서 島內 해안지방을 따라 분포하는 여러 유물산포지 유적에서 발견되는 토기편의 대부분이 이 형식에 속하고

그 출토량도 엄청나, 양적으로 제주도 토기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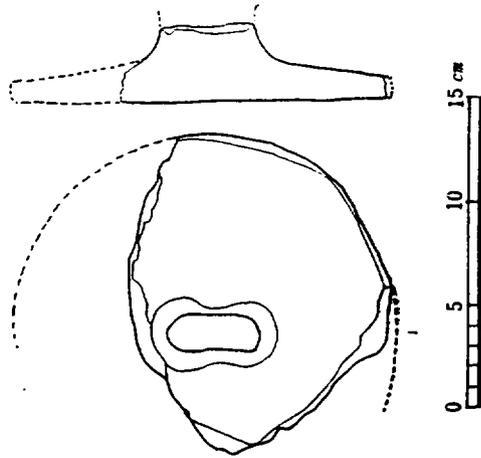
그 크기는 큰 것은 높이 40cm에서 작은 것은 17.5cm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용도에 따라서 그에 맞는 크기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그림15).



(그림15) Ⅲ期 I式 廣口外反口緣항아리토기

곽지패총 출토품의 대부분은 끓이는 용도 혹은 식기용이겠지만, 저장용도 있을 것이고, 용담동 용관유적에서 확인된 바처럼 용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형식의 토기에는 뚜껑이 따르기도 하는데 원판형 모양에 원통형 혹은 장방형의 꼭지가 붙는다. 대체로 같은 시기의 남한지방 각지에서 발견되는 토기 뚜껑이 盆形을 뒤집은 모양인 것과 차이가 있다(그림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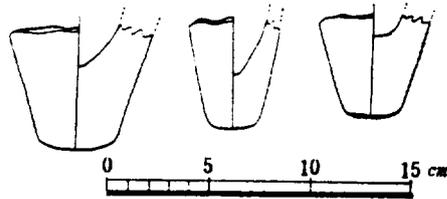


(그림16) Ⅲ期 뚜껑토기

(2) Ⅱ式(Cup形 토기)

마치 원뿔대와 같이 바닥이 뾰족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곧바로 벌어진 토기인데, 높이는 10cm미만의 小形이다.

곽지패총 Ⅱ지구 上層²⁰과 제주시 龍潭洞, 涯月邑 高內里 유물산포지에서 출토되었는데, 곽지패총의 것 중에는 그릇 겉면에 붉은 칠을 한 것이 보인다 (그림17).



(그림17) Ⅲ期 Ⅱ式 cup形 토기

20) 李白圭·李清圭; 《郭支貝塚》, 濟州大學校博物館遺跡調查報告書 제1집,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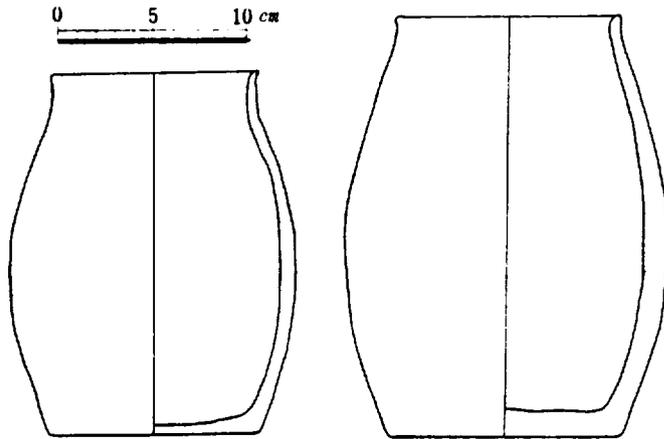
4) IV期

(1) I式(적갈색 深鉢形土器)

여전히 산화염으로 燒成된 것이어서 적갈색을 띠나, 胎土의 精選度, 硬度 혹은 燒成度, 製作手法에 있어 보다 개량 발전된 형식이다.

器形을 보면 구연부가 살짝 外反하고, 입지름과 바닥지름이 거의 같으며 동체부에 가서 다소 완만하게 배가 불러지는 모양이다.

크기는 III期 토기보다 작아졌는데, 높이가 8cm에서부터 28cm에까지 다양하고, 器壁의 두께는 0.8cm이상 넘어가는 것이 없다. 간혹 구연부 안쪽에 회 전시켜 成形한 흔적이 보이며, 바닥은 따로 만들어 동체부와 접합시킨 수법이 前時期 토기와 차이가 난다(그림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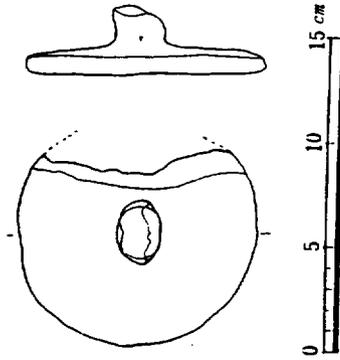


(그림18) IV期 外反口緣 深鉢形 土器

이 형식의 토기가 삼국시대 陶質土器와 함께 郭支貝塚 III, IV지구에서 대량 출토되었는데, 적갈색토기는 전부 이 형식뿐이었다. 이 형식의 完形土器는 서귀포시 獬來洞 rock-shelter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출토되는 토기 두경 역시 III期の 예처럼 원판형에 꼭지가 붙은 것

으로, 전체적으로 심발형토기가 작아진 것처럼 같이 작아졌고 꼭지는 원통형
뿐인 것이 그와 차이가 난다(그림19).



(그림19) IV期 뚜껑토기

3. 종합 고찰

1) I期

남한지방의 신석기시대 토기문화는 지역에 따라 크게 (1) 한강 유역 및 서해도
서지방, (2) 강원도 혹은 동해안지방, 그리고 (3) 남해안 지방의 세 지역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한강유역 및 서해도서지방의 토기는 기본적으로 평남, 황해도 지방의 토기
와 마찬가지로 반란형 혹은 포탄형의 器形에 빗살무늬를 음각수법으로 장식한
것이 주류를 이루며, 전기에는 그릇겉면 전체에 文樣이 시문되다가, 중기에는
底部 문양이 생략되고, 다시 후기에 이르면 구연부 문양만 남는 변화를 보이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¹⁾

21) 任孝宰: “西海岸地域의 櫛文土器文化; 編年을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
14·15집, 1983, pp.1~18.

韓永熙: “韓半島 中·西部地方의 新石器文化; 土器編年을 중심으로”, 《韓國
考古學報》5집, 1978, pp.17~108.

동해안지방의 경우 강원도 양양 오산리 유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陰刻·沈線의 빗살무늬토기가 성행하기 전 隆起文 혹은 押引點列의 平底土器文化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그 절대연대도 한강유역의 전기신석기문화보다도 올라가는 B.C. 5000년경을 전후한 것임이 밝혀졌다.²²⁾

남해안지방의 토기문화에 있어서는, 여러 유적이 발견된 경상남도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隆起文土器, 原始無文土器의 I 단계 토기문화가 등장한 이후 II 단계에는 서해안의 陰刻·沈線의 빗살무늬계통의 토기문화가 성행하고 다시 III 단계에 이르면 독특한 二重口緣토기와 退化短斜線文의 토기가 성행하는 일련의 변화를 보인다.²³⁾

제주도 신석기시대 토기는 아직 北村里 및 한들굴유적의 출토에만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인지 모르나, 적어도 신석기시대 후기에 있어 이러한 세 지역의 문화권 중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남해 도서지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II 식의 이중구연토기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대표적인 예로 그 기원이 서북한지방의 팽이형토기의 영향을 받아 제작한 것이든, 경남지방에서 自生하여 파급된 것이든 지금까지 남해안 및 도서지방에서만 발견된 것으로 이와 같은 토기가 제주도에서도 출토했다는 사실은 같은 지역문화권을 형성했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뒷받침해 준다.

이밖에 빗살무늬토기 퇴화형의 문양으로 분류될 수 있는 短斜線무늬, 斜格子무늬, 톱니날무늬와 민무늬토기 등도 경남해안 및 흑산도지방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남해안의 후기신석기시대 토기와 통하는 토기 이외에도 제주도에는 나름대로 독특하게 발전시킨 토기형식이 있다. I 식의 토기 중 정연한 삼각점렬무늬 및 원형점렬무늬토기가 바로 그것으로서, 점렬무늬토기는 역시 남한 지방에도 보이지만 삼각형과 원형의 모티브만을 이처럼 집중적으로 이용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月舍里 한들굴유적의 일련의 원형점렬무늬 토기는 그 시문방법이 독특

22) 金元龍·任孝宰·權鶴洙; 《鰲山里遺蹟 II》, 서울대학교 고고인류총간 제10책, 1985.

23) 註8) 및 9)의 문헌참조.

鄭澄元; “南海岸地方 隆起文土器에 대한 연구: 型式分類와 編年을 중심으로”, 《釜大史學》 9집, 1985.

하여 다른 지방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출토층위가 분명하지 않아, 보다 확실한 시기 소속의 판정은 금후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제주도 I기 토기문화의 시간적 단계에 대해서는 자체 절대연대자료를 갖지 못하고, 또한 발굴자료조차 극히 적은 현상정에서는 남해안지방의 층위적 발굴자료 및 절대연대자료를 검토하여 比定할 수밖에 없다.

남해안 지방에서 층위적 토기 변천상이 잘 알려진 유적으로 1978~79년 2차에 걸쳐 釜山大學校博物館에서 발굴조사한 金海水佳里 貝塚을 들 수 있다.²⁴⁾

최하층인 V·VI층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押引系 短斜線무늬와 沈線系 短斜線, 橫走魚骨무늬, 斜格子무늬, 集線무늬가 장식된 것으로 口緣部와 동체 상부에만 무늬가 있는 것이 주류를 이루나, 그릇 전체에 걸쳐 시문된 예도 있다.

Ⅲ·Ⅳ층에서는 線무늬를 스치는 듯이 그은 擦過狀沈線文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에 는 사격자무늬, 集線무늬 등이 있다.

접구연 토기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다음 I·Ⅱ층으로 퇴화형 단사선무늬와 민무늬토기 예도 보인다.

이러한 층위적 상황으로 미루어 제주도 북촌리 토기는 대체로 水佳里 貝塚 I·Ⅱ층에 비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전형적인 陰刻·沈線수법의 빗살무늬 토기 단계(V, VI층)와 스치는 듯 그은 擦過狀沈線 수법의 변형 빗살무늬토기단계(Ⅲ, Ⅳ층)를 지나 나타나는 신석기시대 후기 단계인 것이다.

그 절대연대는 水佳里 패총최상층의 방사선탄소연대자료가 $3,390 \pm 70$ B.P., 130 ± 80 B.P. (이하 반감기 5,730년기준), 釜山 金谷洞 貝塚이 $3,580 \pm 75$ B.P., 흑산도패총이 $3,522 \pm 120$ B.P.임을 고려할 때, 그 補正年代를 따져 대략 B.C. 2,000~1,000에 比定되는 바,²⁵⁾ 제주도 신석기시대후기 즉 제 I期の 연대도 이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2) Ⅱ期

남한지방의 청동기시대 무문토기는 크게 (1)변형팽이형토기, (2)공렬 및 끌어

24) 註8)의 보고서.

25) 崔盛洛: "放射能炭素測定問題의 檢討: 理論的 檢討 및 그 活用方法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13, 1982, pp. 61~95.

가리토기, 3) 松菊里式 외반구연토기를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변형 팽이형토기는 지금까지 출토 예를 보면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충청도 이남을 넘지 않고 있고, 공렬 및 골아가리토기는 전라도 및 충남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분포하며, 그 대신 이 지역에는 松菊里式 토기가 유행한다.

한편 팽이형토기에는 공렬 및 골아가리토기의 속성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토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렬 및 골아가리토기 문화권 지역에서 출토하며 제주도지방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육지부 남한지방에서는 이 복합형토기는 공렬 및 골아가리토기에 비해 극히 출토량이 적어 예외적인 것인 반면, 제주도 상모리유적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이다.

다시 말해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처럼 제주도에서는 I식의 공렬 및 골아가리토기, II식의 팽이형토기와 함께 III~V식의 I+II의 복합형 토기가 다량 출토되고 있는 것이다.

I+II의 복합형 토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한강유역의 欣岩里 5호 주거지이고 충청도로 내려와서는 夫餘 松菊里와 忠北 淸州市 內谷洞 유적이 있으며, 더욱 남쪽으로는 경북 月城 內南里 출토 예가 있다. 이들 남한 각지 출토 토기는 III식 혹은 IV식의 토기로 그 숫자는 얼마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주도 상모리 유적에서는 IV식의 토기편이 전체 토기 중에 차지하는 비율도 클 뿐만 아니라, 남한지방에서는 보이지 않던 완전 복합형인 V식의 토기가 다량 출토되고 있어 공렬·골아가리의 동북한계 무문토기와 팽이형 토기의 서북한계 토기의 복합 양상이 더욱 진전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단계는 한강유역의 순수 동북한계 혹은 서북한계 무문토기문화단계(玉石里, 可樂洞 유적단계)와 양 계통의 복합토기문화 초기단계(欣岩里, 淸州內谷洞 유적단계)를 지나 마지막의 복합토기문화 후기단계에 비정된다.²⁶⁾

그 절대연대는 복합토기문화 초기단계의 대표적인 유적인 혼암리 5호 주거지 단계의 연대가 B.C. 6세기초 내지 5세기 중엽으로 비정한 것을 고려하면,²⁷⁾ 제주도 상모리유적의 복합토기문화 후기단계는 B.C. 5세기 훨씬 이후일 것으

26) 한강유역의 무문토기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참조.

李白圭; “京畿道 無文土器·磨製石器: 土器編年을 中心으로”, 《考古學》 3집, 1974, pp. 53~129.

로 推定된다.

이러한 복합형토기문화가 한강유역에서 등장하여, 어떠한 경로를 거쳐 제주도지방에 이르렀는지, 현재의 단계에서 자료의 미비로 단정을 지을 수 없으나, 전라도지방이 전혀 공백이므로 일단 경상도 지방을 경유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경남해안지방의 부산 朝島²⁸⁾, 마산 城山,²⁹⁾ 진주 대평리³⁰⁾ 유적 등 여러 곳에 공렬토기문화가 도달해 있는 사실이 그러한 추정을 더욱 뒷받침해 준다.

한편 II기의 종말단계의 양상에 대해서는 층위적 발굴자료가 미비한 현상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없으나, 郭支貝塚 II지구 3·4층과 東明里 출토 토기가 다음 III기 토기의 태토성분, 두께, 소성도에 가까우면서, 공렬무늬와 입술면의 톱날장식이 퇴화된 상태로 남아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양상이 그러한 단계의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II기 토기가 남한지방처럼 점토머토기문화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음 III기로 막바로 이행되었다는 셈이 되는데 실제로 제주도지방에서는 점토머토기가 1例를 제외하고는 알려진 바 없다.

3) III期

남한지방에서 이 단계에 이르면 이른바 金海式 土器와 함께 외반구연 항아리 토기가 성행하게 되며, 제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같은 외반구연 항아리토기일지라도 細部에서 여러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일한 계통의 토기로 단정짓기 어렵거나, 적어도 그 차이를 설명하는 데 층위적·형식적으로 분명한 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가까운 남해안 지방의 비슷한 시기 패총유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외반구연토기는 점토머토기가 원형점토머에서 삼각형점토머로 변화

27) 註26)논문.

28) 韓炳三·李健茂; 《朝島貝塚》, 國立博物館 古跡調查報告書 제9집, 1976.

29) 文化財管理局; 《馬山外洞城山貝塚發掘調查報告》, 1976, pp. 37~104.

30) 趙由典; “慶南地方의 先史文化研究: 晉陽 大坪里 遺跡을 中心으로”, 《考古學》 5 6집, 1979, pp. 1~140.

다가 퇴화하여 다음 단계에 등장하는 일련의 점진적인 변천상을 보여 주는데, 제주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경남 三千浦市 勒島 유적은 최근 몇년간 釜山大學校博物館에서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보고서가 未刊이어서 확실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철기문화 수반하면서 점토띠토기문화의 말기적 특징으로서, 삼각점토띠 구연이 밖으로 꺾이어 거의 홀구연의 외반구연토기로 移行하는 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³¹⁾

또한 작년엔 木浦大博物館과 國立光州博物館이 공동발굴조사한 전남 海南郡谷里 패총의 경우도 역시 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아 확실하지 않지만, 최하층에서 원형점토띠토기가 출토되고, 그 윗층에서는 구연이 밖으로 꺾인 삼각형 점토띠토기, 그리고 최상층에서는 홀구연의 외반구연 토기가 다량 출토되는 층위적 양상이 나타나고, 그 중간층에서 한대 화폐인 貨泉 1점이 출토됐다는 사실이 능도유적과 거의 공통된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³²⁾

이와는 달리 제주도 광지패총 II 지구에서는 앞서의 II기 공렬토기·골아가리토기 출토층 다음에 막바로 외반구연토기층이 이어지고, 용담동 옹관유적에서도 남쪽구역의 공렬토기·골아가리토기 출토무덤群에 잇대어 외반구연항아리토기를 옹관으로 이용한 북쪽구역 무덤群이 축조되었다. 이러한 제주도 외반구연토기의 출현에 대한 문제는 금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지만, 현단계에서는 일단 앞서의 II기 바로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³³⁾

한편으로 그 절대연대에 있어 용담동 옹관유적의 漢式鐵器의 공반상황을 보아 기원 1, 2세기대에 걸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³⁴⁾, 보다 확실한 上限과 下限

31) 申敬澈; “慶南 三千浦市 勒島遺跡”, 제9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1985, pp. 61~68.

_____, “三千浦市 勒島遺跡(2차발굴)”, 제10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1986, pp. 99~109.

32) 현장답사에 의하여 實見한 것으로 木浦大 崔盛洛教授와 國立光州博物館의 厚意로 알게 되었다.

33) 李白圭 교수는 郭支貝塚 II 지구 최하층에서 점토띠토기 1편을 발견, 보고하고 있지만, 1점의 파편뿐이고 그외의 예가 아직 발견된 바가 없다. 註1)의 논문 p. 147.

34) 李清圭; “濟州島地方의 初期鐵器 性格과 無文土器文化의 展開”, 《韓國考古學報》 17·18, 1985, pp. 13~40.

年代에 대해서도 금후의 자료증가를 기다려 해명할 문제이다.

4) IV期

이 단계는 육지부의 경우 고분시대로서 이미 赤褐色 민무늬토기의 전통이 사라진 지 오래이고 높은 열의 환원염으로 구워진 硬質의 陶質土器가 대량 제작되는 단계이다.

제주도에서는 도질토기가 역시 제작되나, 압도적인 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赤褐色深鉢形土器로, 지역적인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 용도는 토기 겉면에 음식물 액체가 흘러 시꺼멓게 탄화된 예가 많은 것으로 보아, 삶거나 끓이는 용도에 많이 사용된 듯하고 그밖에 당시 食器用으로도 애용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토기문화의 上限과 下限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다. 광지패총 III지구와 IV지구의 공반되는 陶質土器의 형식으로 보아 대략 삼국시대 중엽을 거쳐 말기에 이른 百濟系 토기로 판단이 되는데 보다 확실한 것은 일차 공반되는 陶質土器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층위발굴자료의 증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4. 맺 음 말

이상 제주도지방의 신석기시대후기에서 삼국시대말에 이르는 I~IV期の 토기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자체 자료의 부족, 타지방 자료 검토 또한 불충분하면서도 이러한 논의를 전개한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이 지방의 선사 및 고대토기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하고 앞으로 연구과제와 조사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이다.

불충분한 자료의 제시, 서술과정에 있어 오류와 비약 등이 이 글의 큰 결점으로 앞으로 보완, 극복되어야 할 과제가 되겠다.